

조모컵 경기를 중계하며



지난 2009년 8월 8일 19시, 한일 프로축구의 자존심 대결을 SBS가 생중계했다. K리그와 J리그를 대표 하는 올스타들의 경기, 인천 월드컵경기장에서 제2회 조모컵 경기가 열렸다.

지난 1회 일본 도쿄에서 열린 조모컵에서는 3:1 완승으로 K리그 올스타팀이 J리그 올스타팀을 짓밟으며 K리그의 위상을 드높였었다. 그런 기대감에서인지 한국에서 열린 제2회 조모컵은 인천세계도시축전의 개막과 더불어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의 큰 기대를 모았다. 결과는 4:1로 참패를 당해 매우 아쉬웠지만 당시의 뜨거웠던 현장 분위기와 중계 기술 노하우를 담아보고자 한다.

현장 속으로

굳은 날씨 때문이었는지 예상보다 많은 팬들이 경기장을 찾아오지 않은 듯 보였지만, 경기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관객석은 만원을 이루었다. 특히, 전날 시작된 인천세계도시축전 행사 관람차 방문한 일본인들을 비롯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경기장을 찾았다.

드디어 한일리그 대표 선수들이 입장하고, 몸을 잠시 풀고는 본격적인 경기가 시작됐다. 양팀 선수들 모두 오래간만의 한일전이기에 경기 초반부터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경기가 진행될 수록 K리그 대표팀이 점차 수세에 몰리고, 경기 분위기는 J리그 대표팀 쪽으로 흘러갔지만 관객들은 끊임없는 함성과 응원으로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날 경기 중계를 위해 일본의 ASHAHI TV는 SBS의 중계차를 임대하여 UNI 방송을 진행했는데, 일본에서의 한류 열풍을 짐작하듯이 경기 commentary석에 영화배우 이병헌씨를 초청하여 중계하는 이벤트를 가졌다. 이병헌씨가 나타나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많은 일본 여성 팬들이 중계석으로 몰려들었고, 덕분에 PRESS Center의 기물이 일부 파손되는 웃지 못 할 해프닝도 벌어졌다.



전반전이 끝난 뒤, 최근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초대가수 '소녀시대'의 공연이 펼쳐졌다. 타이틀곡 '소원을 말해줘'와 'Gee'를 귀엽고 섹시한 안무와 함께 열창하여 경기장 내 관객과 스태프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곧이어, 후반전이 시작되고 결과는 4:1로 K리그 대표팀이 완패했다. K리그 대표팀의 패배로 경기장을 떠나는 관객과 한국 중계진 모두 약간은 실망스러웠지만, 이날 생중계는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마무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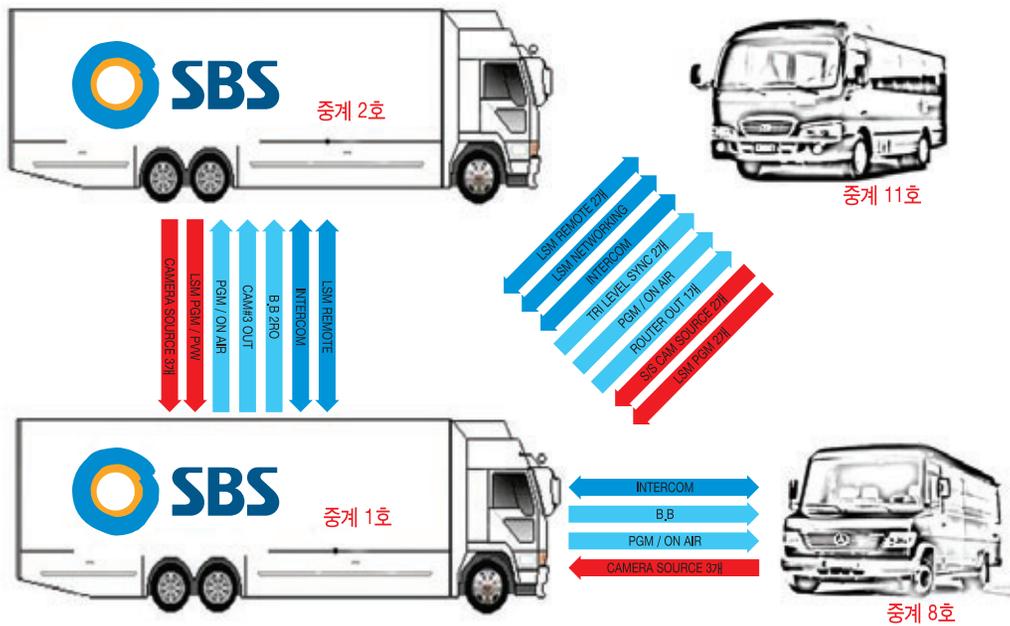
중계 계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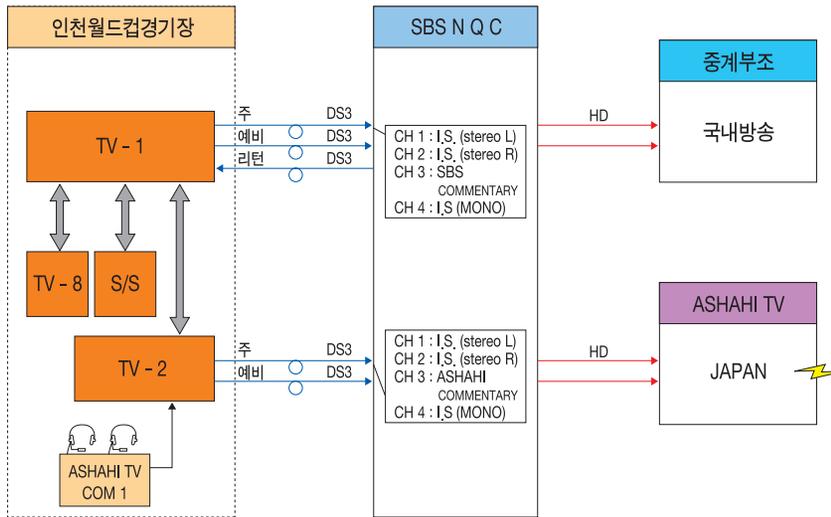
사전 답사시 확인했던 바와 같이 경기 전날인 8월 7일에 인천문학경기장 서문 방향에 SBS의 Main HD 중계차인 중계1호, 중계2호, 그리고 중계8호와 Superslomo 중계차가 현장에 도착하여 중계차 간의 interface를 다음과 같이 구성했다.



JOMOCUP 조모컵 한일 프로축구 중계차 회선구성도

2009. 8. 8(금) 18:45 ~ 21:00 인천 문학 경기장 SBS





언제나 그렇듯이 중계방송 일정이 잡히면 중계기술팀은 스위처 소스 맵핑과 라우터 컨트롤, 모니터 배치 및 기타 등등의 철저한 기술적 준비를 마친다. 이 상태에서 중계차 간의 Interface 작업이 완료되면 사전 준비에 실수는 없었는지, 메인 중계차와 서브 중계차들 간에 원활한 비디오, 오디오 Source 교환 확인과 Intercom 확인, Tally test 및 중계 용도에 따라 특별히 사용되는 Wireless 카메라, 초고속 카메라, 광통신, 특수 마이크 등의 활용에 문제가 없는지 최종 점검한다.

이번 조모컵 생중계는 중계하기 한 주 전에 '맨체스터유나이티드' 초청 경기를 중계했던 경험이 있어 사전 준비와 확인 작업 모두 한결 수월하게 진행됐다. 또한, 일본 방송인들의 특징이 매우 꼼꼼하고 치밀하기에 그에 상응하는 기술적 지원도 아까지 않아 방송 준비에 차질이 없었다.



중계 비디오와 오디오 구성

이번 중계에는 총 18대의 카메라가 사용됐다. 일반적인 Standard & EFP 카메라 14대, Superslomo 카메라 2대, 골대 뒤 초고속 Pin 카메라 2대 등 실감나고 Quality 있는 중계방송을 위해 많은 카메라가 동원됐다. 그리고, 중요 카메라 소스들을 라우터에 수용하고 11개의 LSM과 2대의 VCR DTR을 통해 다양한 하이라이트 장면을 시청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High Quality 중계방송을 위해 노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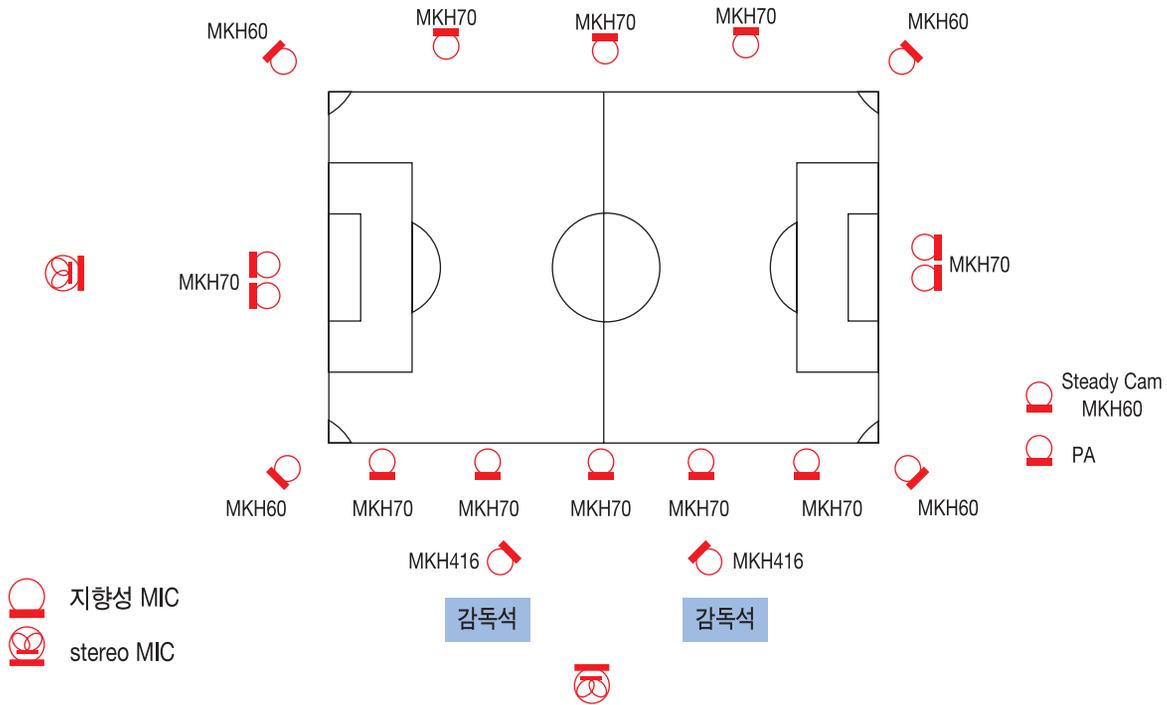
Contents

김학현 · SBS 뉴스텍
+ 조모컵 경기를 중계하며

한편, 오디오 소스도 생동감 있는 수음을 위해 총 23개의 마이크를 배치하여 경기장 내부의 Ball touch sound는 물론이며, 양팀 감독들의 목소리와 경기장 내 Effect sound 등을 mixing했다.

2009 JOMOCUP ALLSTAR SOCCER 조모컵 한일 프로축구 Camara Position

2009. 8. 8(금) 18:45 ~ 21:00 인천 문학 경기장 SBS





[SBS 중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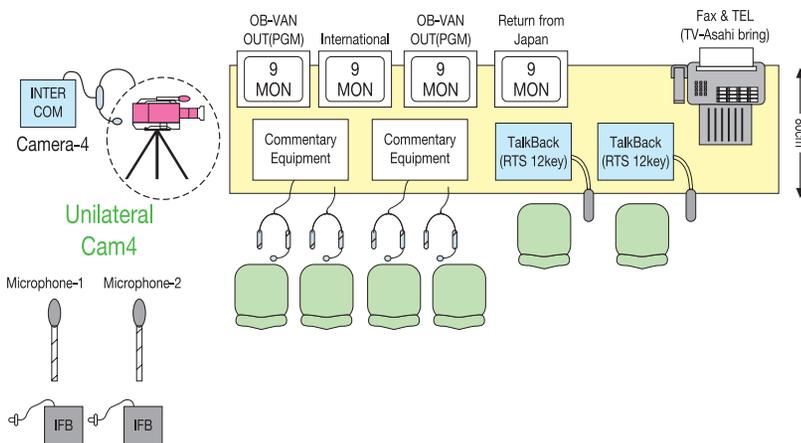
[ASHAHI 중계석]

SBS & ASHAHI TV 중계 Commentary

한일 양국의 큰 관심을 받았던 경기인 만큼 중계석에서의 분위기도 여느 때보다 긴장됐다. SBS는 스포츠 해설 전문가인 김정일 아나운서와 박문성 해설위원 두 명이 조모컵 중계를 맡아 사실적이면서도 현장감 넘치는 중계를 위해 힘썼다.

반면, ASHAHI TV에서는 4명의 중계 아나운서, 해설가와 인터뷰 전담의 아나운서, 기자 등 어웨이 경기이면서도 오히려 한국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를 기울인 것을 엿볼 수 있었다.

ASHAHI - TV Commentary Position



ASHAHI TV측은 조모컵 생중계를 위해 Commentary Position 구성과 배치를 다음과 같이 요청했다.

Contents

김학현 · SBS 뉴스텍

+ 조모집 경기를 중계하며

- Monitor(10") - 4EA[IS Dirtyx1, Return from JAPAN x 1, PGM x 2]
- Commentary Equipment x 2
- Headset x 4, Microphone x 2, IFB x 2
- TALK BACK(RTS) x 2, KEY PANEL(12KEY) x 1 & BELT PACK x 1



[중계차 기술감독석]



[비디오석]



[오디오석]



[중계석]



EPILOG

생중계를 마친 후 기분은 항상 시원섭섭하다. 사전 준비가 아무리 완벽하다고 해도,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방송 사고를 대비해 주·예비, 예비의 예비까지 고려하여 방송 시스템을 구성하고 많은 점검을 한다. 하지만, 항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지기에 생중계를 할 때 긴장을 하고, 방송이 끝난 뒤에는 녹화가 아니기에 추가적인 보정작업을 못하므로 좀 더 잘할 걸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조모컵 대회를 중계하면서 또 한 가지 강하게 느낀 것이 있다. 분명히 한일리그 대표팀의 축구대결이었지만 중계 현장에서는 한일 방송기술인들의 자존심 대결도 있었다. 타국에서 유니 중계차를 빌려서 방송하면서도 많은 엔지니어들이 현장에 와서 기술적 내용들을 치밀하게 검토하는 엔지니어들의 모습과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따르는 다른 기술이외의 스태프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한국의 방송기술인들의 입지는 일본과 비교했을 때 어떨까 하는 생각에 씩씩한 웃음도 나온다.

최근 경기침체의 여파는 열악한 중계 현장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의 근무 환경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어떤 조건이든 최고의 방송을 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 언젠가 외국의 모든 방송 기술인들이 한국의 방송기술인들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배우려는 날이 꼭 올 것이라고 꿈꾼다.